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5: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3:7-8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5:38-48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5)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가진 것 없이 부자로 살기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어저께나 오늘이나(찬133/새135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예수 하나님의 공의, 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코로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 3 - 가족의 재발견

Lessons Learned from Coronavirus 3 - Rediscovering Famil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한 부부도 "이런 남자였나?, 이런 여자였나?"라며 서로를 발견해 가듯이, 이번 코로나로 자녀들과 매일 함께 식사하고, 대화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몰랐던 모습들을 발견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녀들에게 저의 모습이 들쭉났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늘 양복 입고 출근하는 멋진(?) 아버지로 알았는데, 하루 24시간 하루 세끼를 챙기며 여행을 하다 보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아빠의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아빠는 늘 담임목사로 교회를 이끄는 흔들림 없는 리더로 알았다가, 여행 중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초초해하는 아빠의 모습이 생소했다고 훗날 아이들은 여행을 술취하곤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일상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얻어진 서로를 향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큰딸을 시집보내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딸의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덩벙거리는 줄만 알았던 딸에게 디테일까지 꼼꼼히 챙기는 세심한 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딸의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는데 저와 똑같은 AB형인 줄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딸로 늘 책임감이 강하고, 아빠의 목회를 돕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섰던 딸이 저를 닮아 감성적인 면도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으면서도 '의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새벽 1시에도 울며 전화 한 친구를 위로한다고 뛰어나가는 딸을 보며 놀랐습니다.

우리 집의 조용한 사내,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말수도 별로 없고 싸우는 일도 없으며 심지어 큰아들과 달리 특별히 운동도 즐기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엄마 아빠에게 주장하거나, (자기) 원하는 바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이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학 졸업 후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잠시 바깥 생활을 하더니, "좀 더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봉급을 올려주겠다는 회사도 마다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다니던 직장이라도 잘 붙들고 있으면 했는데 아들의 이런 당찬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업구상을 하고 때론 자신의 꿈을 펼칠 직장 인터뷰도 하곤 있지만, 지금은 김씨 집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 가정 요리사로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둘째 아들과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다 합쳐보아도, 팬데믹 상황 속에 아들과 나눈 대화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대화하며 아빠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는 우리 가족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깥 만남을 자제하고 가족을 재발견하는 기쁨이 있듯이, 바쁜 생활을 멈추고 주님과 대화를 늘려가며 주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a couple who lived together for years, who thought they knew each other well, still continues to discover each other, "he is like this? she is like this?" Similarly, during this Coronavirus, there were benefits of discovering our children through daily meals together and increased conversation times. Our family had a time of discovering each other about 10 years ago on a family trip. I think it's probably correct to say that my kids found me out. They knew me to be someone who always wears a suit going to work. While spending 24 hours and three meals a day together on our trip, they were surprised to discover how sensitive I was to even the smallest things. In my children's eyes, their dad was always an unshakable leader of a church as a senior pastor. Later my children shared with me that, on our trip, when an unexpected situation occurred, seeing their dad on edge was an unfamiliar sight. Of course, we did not travel during Coronavirus. Because of increased time spent together at home daily, we have gained discovering each other. My oldest daughter married during this time. My daughter's preparation for her wedding was a surprise for me. I learned the side of my daughter that was meticulous, planning for every detail and not messing around like I thought she was. I thought her blood type was A, but I learned that she is AB like me. My oldest daughter, with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who doesn't hesitate to jump in to help with her dad's ministry, had a sensitive and emotional side like me. Although she was born and grew up in the States, she's fiercely 'trusty'. I saw my daughter running out to help a friend who called crying at 1:00 A.M.

Our silent boy, my second son, never talks much or argues. Unlike my oldest son, he doesn't enjoy any particular sport. He grew up never demanding or insisting on his opinions. After working for a while in an accounting firm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he decided to quit, despite offer of raise in salary. He came home to contemplate on his future of "what he wants to do that would be more enjoyable". We wanted him to stick with his job especially in this pandemic. I was surprised by his bold attitude. He is contemplating business, and interviews time to time with companies that could expand his dream. Currently he is being turned into a family chef, an image that I have never seen in him. Nowadays I enjoy having conversations with my second son at dinner table. I think conversations with my him during pandemic is greater than all of the conversations we've had together until he graduated from college. He says he has gotten to know me better through our conversations. Coronavirus gave our family valuable gift of discover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As we refrain from going out, there is joy in rediscovering family. May this be a time we pause our busy lives, increase our conversations with God and rediscover Him.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5 편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히 13:7-8)

1. 비틀즈의 'Yesterday' 노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7절의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3. '어제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3중직 threefold ministry로 설명해 봅시다.(8절, 히 5:7)

1) _____ (참고/ 히 10:4; 사 42:3)

* 히 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2) _____ (참고/ 히 4:12-13; 눅 24:32)

* 히 4:12-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과 ()를 찢어 찢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눅 24:32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 아니하더냐

3) _____ (참고/ 마 28:18, 엡 1:21)

* 마 28:1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를 내게 주셨으니

* 엡 1:21-22 모든 ()와 ()와 ()과 ()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4. 혈루병 걸린 여자와 아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예수님'을 적용해 봅시다.
(참고/ 막5:21-34, 마 9:18-26, 눅 8:40-56)

■ 적용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찬133/새135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적용하기



베델 예배
현장 예배 I

주의 뜻을 밝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거의 1년여 만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은 저를 새롭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거룩했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본당에 가득했습니다. 하루빨리 현장 예배에서 모든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감동을 누리고 싶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기상원 집사**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꽃을 피우는 봄이라 그럴까요? 답답하고 우울하기까지 했던 시간을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회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찬양에 목이 메고 말씀에 가슴속이 풀림은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림의 기쁨이었습니다. 활짝 핀 봄꽃처럼 성도님들로 꽉 찬 교회에서 맘껏 찬양하고 말씀 듣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습니다. - **김경자 C 권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 본 지 1년 만에 들뜬 마음으로 운전을 재촉하며 들어선 교회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더니, 첫 찬양부터 쿵~하고 가슴을 내려치는 은혜의 감동에 저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웬지 힘이 나고 위로받는 느낌에 계속 눈물이 흘러내려 통통 부은 눈으로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 **김 진 권사**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여서 그런지 교회 현장

예배를 너무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면 자신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동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점점 소홀히 여기게 되고 어느새 몸도 마음도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된 첫날, 저는 은혜와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현장 예배를 통한 베델 worship 팀의 찬양과 담임목사님의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깨달으며,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아무 제약 없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종곤 집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배가 그리워 코트야드에서 토요일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했고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성전 안에서 드디어 예배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곡조의 기도가 되어 저의 눈시울을 적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속히 베델의 모든 성도님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의 감격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김오옥 권사**

올해 예배 팀장으로 섬기게 된 저에게는 현장 예배날이 가슴 벅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분주하고 한 분 두 분 본당으로 오시는 성도님의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엔 일 년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 환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그동안 현장 예배를 갈망하던 마음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감사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통하여 저에게 예배라는 보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허락하신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여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김응진 집사**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 드리는 예배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은혜로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깨닫는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를 생각하며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모두 상달 될 것을 믿습니다. - **김인홍 권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후, 지난 주 첫 현장 예배 드리게 된 것은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과연 예배의 현장에는 역동적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생생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모두 함께 소리 내어 찬양할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활기찬 환영은 살아있는 현장 예배를 더욱 실감나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더욱 감사하며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 **김정화 권사**



교회를 향해 설레는 발걸음으로 도착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정말 소중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느 때보다 더 기뻐하며 조금은 더 철든 모습으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현장 예배였습니다. - **김혜미 권사**

베델 예배
현장 예배 I

위쁨의 띠 띠워 주신 주님!

닫혀있던 본당 문을 여시고 주일 현장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뵈지 못했던 장로님, 집사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면하여, 반가운 마음을 격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눈인사로 대신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리던 예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님도, 베델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 김효선 집사



2019년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받았던 오키드에 꽃이 시들어 떨어지던 때가 바로 1년 전 3월이었습니다. 그 예쁜 꽃을 피웠던 오키드에 매주 한 번씩 물을 주고 부지런히 돌봤더니 바로 지난주. 딱 1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워하던 현장 예배를 드디어 1년 만에 드리던 제 가슴에는 일 년 만에 꽃을 본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햇살도 없는 수풀을 뚫고 가다가, 마침내 다시 빛이 보이는 곳에 도달한 듯 제 마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베델교회를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다무라 고조 장로

익숙하면 무뎠지는 것인지 현장 예배의 재개와 중단의 반복을 통해 은혜에 무뎠진 제 마음을 이번 현장 예배 첫날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저 받는 은혜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악한 제 마음을 회개하면서 파랑새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처럼 은혜도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나의 곁에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현장 예배 첫날이었습니다. - 김학철 집사

몇 년에 한 번이지만 그리운 부모님을 찾아볼 때면, 만남의 기쁨과 함께 제가 자라온 추억이 담겨있는 우리 집에서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교회는 참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은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이렇게 배웁니다. 부족한 저를 맞아주시고, 영상 속에서 빠져나와 함께 모여 숨쉬는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성려 집사

새롭게 리모델링한 카페에서 모처럼 카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기대보다는 염려가 많았으나,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카페의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직접 대면하며 드리는 예배와 교제에 목마름과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팬데믹 이전 못지않게 많은 성도님이 실내와 야외 카페 테이블을 가득 메워주셨고, 모든 테이블마다 함박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교회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 종식될, 아니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허락하실 새로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 변준호 장로

어려서부터 주일성수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은 저로서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한마디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의 1년간 뵈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예배의 회복이요 예

배의 감격이었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이길수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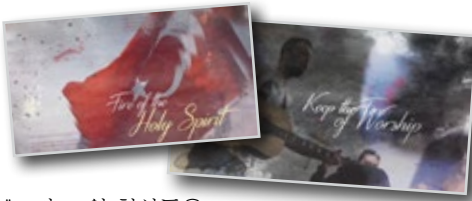
1년 만에 오픈되는 현장 예배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온라인 예배로는 대체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나오시는 성도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마스크는 썼지만, 전심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성전 가득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무한한 은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현장 예배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 이석배 집사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폭포수 같은 담임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선포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라는 은혜받고 부르는 눈물의 찬송, 그리고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여기 베델의 숲에 우리 주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라는 목사님들의 찬양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베델의 현장예배를 통하여 맛보게 해 주신 천국이었습니다. - 이선갑 장로



베델 선교

선교다큐 "불" 스케치



"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히 1:17) 매주 화면에 올려주셨던 말씀입니다. 5주간에 걸쳐서 보여 주신 선교 다큐 시리즈를 통해 주신 감동과 은혜를 글로 표현하기엔 부족하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현실에도 복음을 통해 난민 고아들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 나라를 버리고 난민으로 신분을 바꾼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뿐 아니라 직장은 물론 모든 걸 포기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 분들, SNS를 통해 복음에 대해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다는 이야기 등 오직 성령

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지금 터키를 비롯 이슬람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를 아시는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기독교 문화와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국으로서 지난 1700년 동안 문화와 전통은 잘 지켜 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데 교회와 같은 죽은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전략적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 아르메니아의 교회가 회복되고, 현지인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주변 국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터키에는 8,300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단지 7,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터키 내에 일어나는 교회 개척 사역을 보면 다양하게 사역들이 일어나며, 지역 교회 중심으로 가족 모임들이 발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기도가 바탕이 되었고, 현지인들에 의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느 선교사님의 나눔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는 물질이 있어야 하고 은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터키와 이슬람권을 비롯해 온 지구촌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어두운 환경에 불을 켜는 역할이라는 한 선교사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팬데믹이라는 산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은 이 때에도 하나님은 터키와 이슬람권 지역에 홀으신 난민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도 새로운 vision과 열정으로 선교의 고도를 높이게 되길 기도합니다.

김은혜 집사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조각이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팬데믹으로 모든 게 멈춘 듯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왔지만 그래도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사랑과 아픔을 나누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그립습니다. 오랜 동안 외국생활의 경험 탓인지 두려움 없이 시작했던 이민 생활,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세 아들들은 어떤 곳보다 이곳을 좋아하고, 학교에도 잘 적응해 어느덧 대학진학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내 인생의 광야. 이곳에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몰밀듯 닥쳐 오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송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걷히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이기심,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끌어가던 삶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

리로 이끄셨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시편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오늘도 영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며 팬데믹으로 예상치 못한 긴 휴식의 시간들을 통해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아픔과 고난조차도 승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들을 새롭게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자녀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갈 것 간절히 기도합니다.

윤광미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셀/기도: 박경철 목사
 베델워십: 김섭리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예심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심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심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경원, 백동휘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영아부: 윤희준 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제27차 제자반 주행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비롯하여 신앙 훈련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델 제자훈련은,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대면하여 나눌 때 영적인 꽃을 피울 수 있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같이 울고 웃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 더 크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제자훈련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Zoom이라는 온라인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자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한 훈련의 매 순간도 은혜였고 감사였으나, 비대면의 한계 탓인지 따뜻한 영적 교감이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조금씩 모이길 힘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따뜻한 기운이 밀려와 꽃망울이 조금씩 피어나듯이 우리의 만남에도 꽃을 피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제자반 주행을 통해 그동안 둔탁해진 영혼에 기지개를 켜고 기도로 영적 민감함을 다시 되찾고, 주께 부르짖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제자반 주행은 팬데믹 이후 첫 주행 사역의 시작이라는 뜻깊은 의미로, 많은 분께서 정성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주행 사역팀에서 음식 패키지를 제공해주시고, 훈련팀에서 안내 데스크와 행정적으로도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더불어 카타콤 기도회팀이 함께 동참하여 기도회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제자반으로부터 온 교회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깨어나 주님과 동행, 주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영적으로 달궜진 후에는 제자반 별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영적 메이트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 주 안에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자반 훈련생들은 모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타지에 계신 분들은 Youtube나 Zoom으로 접속할 예정입니다) 훈련생들을 위한 기도 후원자들은 훈련생들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3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베델교회 비전채플

▶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네이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교회 현장 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의 보호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가운데 제한된 숫자 내에서 주일 1부, 2부, 4부(예배) 예배를 실내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토요 0부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계속되며 현장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ckin.bkc.org).

<다음 세대 예배 및 각 부서 현장 예배 안내>

- 유아부 현장예배: 3월 28일 2부 예배, 본당 2층 영아부실, 10명(학부모 포함 20명)
- 유치부 현장예배: 3월 28일 2부 예배, 식당, 12명
- 유년/초등부 현장예배: 3월 21일 2부 예배, 체육관, 30명(변동 가능)
- 한어 중고등부(CIM) 현장예배: 3월 14일, 20명
- 영어 중등부(BYM Jr. High) 현장예배: 3월 28일, 20명(7, 8학년)
- 영어 고등부(BYM High School) 현장예배:
3월 14일, 20명(12학년) 3월 28일, 20명(9-10학년)
3월 21일, 20명(11학년) 4월 4일, 20명(9-12학년)

*모든 자녀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유아부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는 부모님은 1부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별 예배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 **2021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및 성금요일 예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될 이번 집회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팬데믹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마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참여하셔서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일시/장소: 3월 29일(월)-4월 2일(금), 새벽 5시 30분, 온라인
강사: 김한호 담임목사

◆ **부활절 맞이 세례, 입교 신청**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4일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샬, JM은 각 부서에서 신청, 교육 문답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3월 14일(주일)-3월 28일(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문의: 왕동원 장로 (949)910-1584 *신청자는 성례부에서 개별통보 합니다.

<성인 세례, 입교 (2부 예배 시)>

교육 일시/방법: 3월 28일(주일) 오후 1시, 3월 31일(수) 오후 7시, Zoom Meeting

문답 일시/방법: 4월 1일(목) 오후 7시, Zoom Meeting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유아 세례 (3부 예배 시)>

부모 문답 일시/방법: 3월 31일(수) 저녁 8시, Zoom Meeting

자격: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세례교인(혹은 입교인)으로서 만 2세 미만인 자녀

◆ **제27차 제자반 주행** 제자반 훈련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행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반 훈련생들은 참여를 바랍니다. <7면 참조>
일시/장소: 3월 19일(금) 저녁 7시 30분, 비전채플

◆ **베델 수요 프로젝트** 3월 17일(수) 오전 10시, 베델의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2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태국 선교(온라인) 팀원 모집**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영상편지도 보내고, Zoom 미팅을 통해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토요 헬시바 기도회에서 선교영상보고도 하는 등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일정/문의: 3월 14일(주일)-5월 22일(토), 최호경 집사 (512)947-7291
신청 방법: 홈페이지 선교팀 신청 바로가기

◆ **BYM 중등부 PTA 미팅** BYM 중등부에서 학부모님들과 미팅이 오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열리는 주일 현장예배와 안전을 위한 절차 및 학부모 기도모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오니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3월 14일(주일), 오전 10시 45분-11시 15분
방법: Zoom Meeting (링크 주소는 BYM 중등부 학부모 카톡방을 통해 공지 예정)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어린이 창조과학 온라인 캠프** 학교에서의 잘못된 진화론의 가르침으로 혼동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배우는 어린이 창조과학 캠프에 초대합니다. 교회 웹사이트와 베델교회 카톡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대상: 3월 14일(주일)-3월 27일(토), 4-6학년 (2020-2021 School Year)
크래프트 픽업(Drive Thru) 일시: 4월 18일(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강사: Michelle Inhee Kim
등록비: 베델교인(교인번호 필수) \$30/ 타교인 \$50 (인원 제한)
문의: 안지호 팀장 (949) 241-1807

◆ **베델서점 안내** Bethel Grace 영어권 사역을 위해 C성전이 레노베이션을 하게되어 4월 30일(금)로 문을 닫게 됩니다. 특별할인을 진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베델 방역팀 모집** 코로나 팬데믹 최일선에서 베델교회의 모든 시설을 철저한 방역으로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안전한 현장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시간: 1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4시 30분
2팀: 매주 주일(1부 예배 후) 오전 8시-9시
3팀: 매주 주일(2부 예배 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강정훈 집사 (949)275-0364

◆ 위로해 주세요

- 故 Jovani Leyva 형제님(Otilio Leyva의 큰 아들)께서 3월 9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나정균 집사님(김경수 집사의 부친, 김진영 집사의 장인)께서 3월 13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호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Yesterday and Today is the Same

(Hebrews 13:7-8)

1. What is the message of Beatles' hit song 'Yesterday'?

Apply to Life



2. Verse 7 mentions "your leaders" - who are they referring to?

3. Explain 'yesterday's Jesus' in terms of the threefold ministry (v.8, Ref: Heb 5:7)

1) _____ (Ref: Heb 10:4, Isa 42:3)

* Heb 10:4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 blood of bulls and goats to take away ().

2) _____ (Ref: Heb 4:12-13, Luke 24:32)

* Heb 4:12-13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 and (); it ()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 Luke 24:32 ... Were not ()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opened the Scriptures to us?

3) _____ (Ref: Matt 28:18, Eph 1:21)

* Matt 28:18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 Eph 1:21-22 far above all () and (), () and (), and every title that can be given, not only in the present age but also in the ones to come.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4. Recalling the incidents when the woman with the bleeding problem (hemophilia) was cured and the daughter of synagogue ruler Jairus was saved, discuss how 'today's Jesus' applies to us.

(Ref: Mark 5:21-34, Matt 9:18-26, Luke 8:40-56)